

##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석자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정말 귀한 손님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혁신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거듭 실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을 비롯한 여섯 분의 기조연설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혁신박람회에 소개된 여러 성공사례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청와대는 대한민국 혁신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당시부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삼아 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참여와 투명'이 바로 우리 국정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부터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보고와 기록관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러한 정보들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는 하루 방문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국정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여기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100배가 넘는 경제성장과 눈부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거둘 수 있었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방형 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금융과 IT, 물류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와 함께 자유와 인권,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평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절실합니다.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우려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렸고, 다음달에는 장관급회담

이 개최됩니다. 6자회담 참가국 간에도 활발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방문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